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2004년), pp. 147~169
연구논문

울릉도민의 이주과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고찰*

김 태 원**

이 연구는 울릉도 주민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인 문헌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오늘날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울릉도의 사회·문화·정치적 현상들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 초기 개척령 당시의 주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울릉도로 들어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였는지, 인구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단순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울릉도나 본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울릉도민의 이주동기는 혼란한 육지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피해 울릉도로 이주한 사회·정치적 동기와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 이주한 경제적 동기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도피처로 울릉도를 선택한 범죄적 동기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울릉도는 하나의 독특한 사회로 발전하였다.

핵심단어: 울릉도, 이주, 정착, 문화, 인구

I. 머리말

울릉도는 기록상으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처음 등장하며, 고대와 신라,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의 공도(空島) 정책과 수토(搜討) 정책, 개척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정책에 의해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진 섬이다.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울릉도에는 정책적 진행과정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행정적 체계 아래 이주정책이 실시된 이래 오늘날까지 고유한 문화와 생활풍습을 이어오고 있다.

울릉도는 조선시대에는 공도정책으로 인하여 공식적으로는 빈섬으로 남아 있다가 1882년에 개척령과 더불어 이주가 시작된, 이른바 개척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조선왕조는 공도정책 하에서도 수토정책을 실시하여 2년에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005-Y00077).
** 영남대학교

한번 정도 일본인에 의한 섬의 점유나 벌목을 막고, 불법 거주민을 쇄출시키고자 울릉도를 검찰하였다. 그러므로 공도정책 하에서도 여전히 울릉도는 우리의 영토로 인식되었는데, 이것은 개척령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일본인의 불법 침입과 벌목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꾸준한 유입실태는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 기술되어 있듯이 개척령이 내려지던 1882년 당시에도 140명의 우리 주민과 78명의 벌목 일본인이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듯이 울릉도에는 개척령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과 거류민의 쇄출이 반복되었다. 이들 거류민 중에는 육지에서 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범법자들이나 경제적 이유로 울릉도로 건너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울릉도로 가기에는 험한 파도와 싸워야하고 항해 중에 잦은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릉도를 피난처로 여기기에 충분하였다. 즉 울릉도에 본토의 행정적 힘이 쉽게 미치지 못했던 이유가 울릉도로 꾸준히 사람들이 유입되게 한 원인이었고, 이것이 수토정책이나, 검찰과 같은 행정적인 힘을 울릉도로 끌어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울릉도 주민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주해 와서 오늘날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포함되는 시간적 범위는 개척령 이후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개척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공식적인 이주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울릉도로 유입된 인구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개척령 이후의 기록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척령 이전의 역사적 자료에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주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술적 분석 자료로서는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정기적이고 산만한 자료이므로 이러한 사료들을 분석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 II장에서는 연구내용 및 범위,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역사적 측면에서 울릉도민의 이주에 대해 고찰해 보고 더불어 인구변화의 추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런 다음, 제IV장에서는 울릉도민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과 이주동기를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제V장에서는 심층면접의 자료를 통하여 울릉도민들의 이주동기의 실제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VI장에서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울릉도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얻어낸 자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울릉도 역사에 대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주로 역사적 사건 속에 놓여진 주민의 입출입 양상이나 정부의 울릉도 검찰에 대한 기록으로 한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울릉도에는 정부의 행정적 간여와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꾸준히 주민이 거주하였고 본토를 오고 간 흔적이 있다.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사료를 통한 울릉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입출입 양상에 관한 것은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 나 사료에 언급된 정도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다룰 수 없었다. 고려시대의 『고려사』에 나타나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주로 사건 발생에 대한 기록으로 주민의 생활상이나 인구이동에 대한 수치는 드러나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구체적 사료로 다루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의 현황은 본 논문에서는 도표로 처리하였지만 사료상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료적 기록을 통해 최소한 역사적으로 보아 울릉도는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분석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은 개척령 이후의 시기를 중점적인 연구대상 시기로 정해 이 시기의 실태를 알기위해 울릉도의 개척사를 잘 알고 있는 거주민이나 이주자 후손들을 찾아 심층적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개척령 이전의 기록에 나타나는 이주민 정책이나 주민 이동상황, 울릉도와 관계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분석은 주로 문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 데, 이는 벌써 육지에서 울릉도로 이주한 후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 후손들에 의해 구전되던 이주사를 더 이상 재구성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과정에서 이른바 개척 1세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시기상으로 이미 118년 전의 일이니 불가능하였고, 2세대조차도 고령화되어 기록이 아닌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주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개척령 이후 울릉도로 이주해 온 이른바 개척 1세대는 그들이 울릉도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초기 이주민들

은 울릉도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자손 대대로 정착하려는 자발적 의지보다는 울릉도를 중간 정착지로 여긴 흔적이 더 많다. 이것은 고립된 섬이 가지는 울릉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개척초기에 이주해 온 이주자의 후손들은 대부분 울릉도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육지로 다시 이주해 갔으며, 초기 이후의 후손들은 비록 고령이지만 아직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의 면접자료를 기술하고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료수집과 면접과정에서 면접자들이 고령이고 그들의 구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료가 없다는 것은 자료분석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울릉도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한 국제정치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역사·정치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이 울릉도 뿐만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조사자료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는 울릉도 및 그 주민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연구이며, 이를 토대로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오늘날의 울릉도를 이해하려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I. 울릉도민의 이주: 역사적 고찰과 인구변화의 추이

1.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주민 유입과정

울릉도는 고대로부터 알려져 온 섬이었으나 여진족, 일본인 등의 침탈과 지리적 사정 등으로 개척과 빈섬의 상태가 반복되어 오다가 일본의 침탈이 끊이지 않자, 1882년 고종(高宗) 19년에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이 울릉도에 대한 개척 건의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후 공도정책이 철폐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해 6월 5일에 개척령이 내려지고 8월 20일에는 처음으로 도장(道長: 전석규)을 두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체계가 갖추어진 섬으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성종(成宗) 2년 1471년에 경찰관 박종원의 순찰 결과, 울릉도에는 거주민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 1882년에 개척령이 내려지기까지 울릉도는 411년 동안 정책적 공도로 남아 있었다.

조선시대의 태종 때에는 내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울릉도에 대해 태종은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안무사(茂陵等處按撫使)로 삼아 울릉도로 도망해 들어가 부역과 세금을 피해 숨어 있는 자들을 본토로 강제 이주시켰고, 세종 7년(1425)에도 역시 김인우가 병선 1척을 이끌고 (승선원 50명) 3개월 만에 귀환하면서 도민 20명을 서울로 압송했다.[1] 이는 울릉도의 존재를 확실히 함과 아울러 이곳에 거주하는 거민을 육지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공도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세종(世宗) 20년(1438)에는 울진인호군(蔚珍人護軍) 남회(南薈)와 사직(司直) 조민(曺敏)을 무릉도순찰경찰관으로 임명하여 수검케 하고 주거민 66명을 쇄환하였다.[2] 세종 23년(1441)에 만호 남호(南顥)로 하여금 거민 70여인을 쇄출시켰다. 그 후 성종 2년(1471)에는 울릉도와 별도속도인 삼봉도가 있다는 보고가 있자 왕은 경찰관 박종원(朴宗元)으로 하여금 순찰케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고, 순찰자가 귀환보고 하기를 "울릉도에는 거민이 없다"고 하였다. 이후 공도화된 것을 기회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계속 진출(기죽도, 죽도, 송도 등으로 칭하여) 내왕함으로,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국 대마도주를 통하여 엄중히 항의하였다.

후에 숙종(肅宗) 23년(1697)에 조정에서는 울릉도수토를 2년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했다.[3] 숙종 25년(1699)에 강원도 월송만호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본도 지형도와 토산물을 바쳤다. 그리고 숙종 28년(1702)에 삼척영장 이준명(李浚明)이 역관 최재홍(崔在弘)을 대동하고 울릉도를 수토하고 본도지형도와 토산물을 진상했다. 영조(英祖) 11년(1735)에는 수토관 삼척영장 구억(具億), 군관 최인(崔燐), 왜학(倭學) 김선의(金善義)가 섬을 순찰했다는 기록을 담은 각석문이 태하동에 남겨져 있다. 그 후 영조(英祖) 45년(1769)에는 울릉도에 산삼채취인이 잠입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이를 계기로 삼척보사 서노수(徐魯修)가 하옥되고 감사 홍명한(洪名漢)이 파직되기도 하였다. 영조 47년(1771)에는 수토관 월송만호 한창국(韓昌國)이 왜학 이복상(李福祥)과 격군 80명을 대동, 4척선으로 (4월21일부터 4월30일 사이) 내도하여 상세히 순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말기인 고종 29년(1892)에는 이차구휼이 있어 선전관 겸 방어사 윤시빙(尹是騁)이 울릉도에 가서 소금을 분배하고 헐값에 나선 1척을 건조하고 징세물

1)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8월 甲戌.
2) 『세종실록』 권76 세종 20년 4월 辛未.
3)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4월 13일.

품을 가득 싣고 돌아갔다고 한다. 고종 31년(1894)에 큰 흉년을 당하여 도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부유층이 솔선해서 상부상조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고종 32년(1895) 8월 16일에는 도장직제가 개정도감으로 바뀌었다. 당시 도장은 오상익(吳相謚)이었다. 고종 건양원년(1896) 5월에 도감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고 동년 2월 28일에 도수 배상삼(裵尙三)의 살해사건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거주민들의 쇄출과 이주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1414년~1903년의 거주민 쇄출과 이주 현황

연도	인구현황	참고사항
1414 (태종 12)	거민 11호 60여명	백가물이 알려옴
1425 (세종 7)	거민 20명 서울 압송	
1438 (세종 20)	거민 66명 쇄환	
1441 (세종 23)	거민 70여명 쇄출	
1882 (고종 19)	거주민 수: 294명	한국인116: 일본인78
1883 (고종 20)	16가구 54 명 이주	공식적인 첫 이주
1900 (광무 4)	거주민 수: 1844명	한국인1,700: 일본인114
1903 (광무 7)	일본인 63 가구 거주 확인	

자료: 국역조선왕조실록

광무 9년(1905)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보호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치안권은 일본 헌병대가 장악하였다. 광무 10년(1906) 3월 5일 울릉도의 군수 심흥택은 일본국 도취현(島取縣) 당국자들이 울릉도의 부속인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켰음을 통보하고 돌아간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다. 동년에 관할당국에서는 종전에 섬 전체를 남 북면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남면 일부와 북면 일부를 떼서 서면을 신설하여 남, 서, 북 3면으로 세분하였다. 광무 11년(1907)에는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릉군이었던 것이 경상남도 울릉군으로 개칭되어 이속되었다. 당시 1907년 말에 한국호구표에 나타난 경상남도 울릉군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의 총인구는 한국인 781가구 4149명이었다.

서기 1910년(명치 43년)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지방관례로 종래 부군의 하부생정단위가 면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총독명령은 제령으로, 총독부명령은 부령으로 하여 행정명령을 발하고 총독부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한국 내의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서기 1912년(大正 1년)에 총독부는 토지조사령을 발

하여 본격적인 토지조사에 착수한다. 이때 울릉도는 헌병대 치하에 있었고 주민은 1,712가구 8,820명(한국인 1,092가구 6,802명, 일본인 620가구 2,018명) 이었다. 서기 1914년(大正 3년) 3월 10일에는 조선총독부령 111호로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개칭되어 경상남도 울릉군이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이속되었다. 서기 1913년 3월 13일에 울릉도공립보통학교(1911년 11월 3일에 설립한 사립보통학교, 현 울릉초등학교)가 개교되었고 동년 8월1일에 울릉도공립심상소학교(일본인 전용)가 개교됨과 동시에 태하동에 분교장이 설치되었다. 위 본교는 광복 후 폐교되어 현 울릉중학교로 바뀌었다. 서기 1915년(大正 4년) 5월 1일에는 울릉도가 제주도와 더불어 도제로 개편되어 울릉도청이라 불리기 시작하였고, 도사 다곡겸작랑(茶谷兼作郎)이 경찰서장을 겸임하면서 치안과 행정이 한 사람의 지휘 하에 맡겨져 도령이 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일제는 울릉도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암암리에 이주정책을 폈다. 1914년 말에 울릉도의 총인구는 1,899가구 10,361명 (한국인 8,957명 일본인 1,404명)이었지만, 1915년 말에 총인구는 1,774가구 9,623명으로 1년 만에 125가구 738명이 감소되었다.

2. 인구분포의 변화

개척령의 초기에 울릉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났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주와 개척은 갑신년(甲申年, 1884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울릉도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원인으로는 당시 울릉도는 그 면적에 비해서 비교적 생산되는 산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척은 1884년 이후였으나, 이주민들은 울릉도로 배를 타고 오는 도중 풍랑을 만나 짐을 바다에 던지거나 육지로 돌아가다 풍랑을 만나 변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1904년(光武 8年 甲辰)에는 전체가구가 80가구, 인구는 260명 이었는데, 5년 후 1909년 말에는 702가구 4,995명으로 5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20여 배나 늘었다. 이 시기에 가구수는 거의 8.5배 정도 증가한 데에 비해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이주가구의 가구원수가 이전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즉, 다세대 적어도 2세대 이상의 가구가 이주한 것이며, 이는 육지에 재산이나 다른 가족을 남겨두고 울릉도로 이주한 가구보다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가구원이 울릉도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 주민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11년에 일제 강점기의 울릉도의 인구는 1,040가구 6,490명으로 증가하였고

1912년 6월 말에는 1,912가구 6,802명에 달하였다.[4]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울릉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明治 30년) 경인데, 당시에는 이들은 벌목을 주로 하고 버섯재배를 시도하여 물품을 교환해 왔으나 차차 어업을 주업으로 하게 되었다. 1903년에 일본인 가구는 63가구 였지만, 1909년에는 190가구, 1912년에 6월 말에는 630가구 2,018명에 이르렀다.

백산(白山) 문보근(文輔根)의 필사본(1961) 『동해의 수련화』에 따르면 1912년 당시에 울릉도 남면과 북면의 인구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1912년의 남면 6동과 7동의 인구현황

	남면 6동			남면 7동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남	여		남	여
한국인	333	1,094	993	343	1,125	1,094
일본인	370	856	435	221	391	225

〈표 3〉 1912년의 북면 5동 인구현황

	가구수	인구수	
		남	여
한국인	416	1278	1218
일본인	29	61	50

자료: 문보근(1961)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당시에 울릉도로 이주한 우리 주민은 1,092 가구였는 데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세징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1,092가구 중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호세(戶稅) 일원 20전을 낼 수 있었던 가구수는 891가구 였었고, 단가옥 소유자가 201가구, 면(面)비를 낼 수 있는 자가 1,048가구, 극빈해서 호세나 면경비 면제 대상자가 44가구 였다.

일본인은 모두 620가구였었는 데, 그 중에서 영구거주로 간주되는, 즉 울릉도 내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호세 30전을 낼 수 있었던 가구수는 274가구 였

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1912년의 가구수는 1,492 가구에 8,222 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울릉군지, 1989).

5)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는 1912년의 우리주민 가구수는 1,104 가구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울릉군지, 1989).

었다. 하지만 울릉도에 거주하지 않고 오징어잡이를 목적으로 하여 매년 5-6월경 부터 울릉도에 들어와 오징어잡이가 끝나면 곧 돌아가는 일본인이 258가구였었고, 면경비를 낼 수 있었던 가구수는 362가구, 호세 면제자는 61가구가 되었다(문보근, 1961).

거주지 별로 보면 우리 주민은 대개 해안을 떠나 내륙이나 계곡 같은 대지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일본인은 주로 해안가에 거주하였다. 우리 이주민 중 가장 큰 집단은 북면의 나리동에 있었고 이 지역의 가구수는 93가구였으며, 인구수는 500여명 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은 기타 각 지역에 산재해 거주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농법에 따라 생업을 유지하였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었다.

통계상으로 일본인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19년으로 이 시기에 인구수는 349가구 1,247명으로 전체 인구 9,633명의 12.9%를 차지하였다. 1920년의 울릉도 인구는 한국인이 1,422가구 8,141명, 일본인이 227가구 800명이었으며, 지나인이 1가구에 4명으로 모두 합쳐 1,650가구 8,945 명 이었다. 5년 후인 1925년에는 한국인이 1,485가구 7,040명으로, 가구수는 63가구가 늘었지만 인구는 오히려 1,101명이 줄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163가구 560명으로 가구수는 64가구가 줄었고 인구수는 240명이 줄어들었다. 지나인은 3가구에 9명으로 증가하였다(울릉군, 1999).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민은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정착지가 주로 해안이 아닌 내륙이 많았고, 반면에 일본인들은 주로 어업이 용이한 천혜의 포구였던 도동이나 태하동에 모여 살았다.

울릉군의 통계연보(1989)에 따르면 울릉도의 인구는 1929년에는 한국인 9,236명, 일본인 476명 전체 9,722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942년에는 14,134명, 1970년에는 23,248명, 1975년 29,199명으로 증가했다. 1942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28년간의 울릉도 인구증가율은 207% 정도로 동기간의 남한 인구증가율 222%에 비하여 약간 낮은 편이긴 하나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울릉군, 1999: 79). 그러나 이러한 순조로운 인구증가추세가 1975년부터 감소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울릉군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1974년 29,810명이었던 인구가 1975년에는 29,199명으로 2%정도 감소하고, 1976년에는 다시 27,468명으로 약 6%, 1977년에는 9%까지 줄어든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1960년 대 후반 이후의 도시화에 따른 일반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 감소율이 평균 인구감소율에 비하여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 즉 어업중심지인 울릉도에서는 고용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드는 반면, 본토는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어기 때는 유동인구에 의한 인구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인구의 구성을 보면 1976년에는 여자 100명에 대하여 남자 109명으로서 남자가 더 많은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울릉도의 경우 현저한 것이 특색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거주지별 성비는 전국이 100.7로 대체로 균형을 취하고 있는데 울릉도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인구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1976년도의 울릉도는 전인구의 약 절반인 49%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70%이상으로 높은 곳은 저동 1동, 남양 1동, 천부 1동, 현포 1동 등의 포구이다. 이에 대하여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비율은 22%로 이들은 비교적 경사가 낮고 평지가 많은 나리동(84.8%), 천부 2동(76.0%)과 4동(87.1%), 현포 2동(77.6%), 남양 2동(80.5%), 남서 2동(74.5%), 사동 3동(70.8%)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

IV. 이주정책과 이주동기

1. 조선시대까지의 이주정책

조선시대까지 진행된 울릉도 이주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공도정책과 수토정책 그리고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일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과 개척령 시기로 구별해 볼 수 있다.

1) 공도정책과 수토정책

1600년대 말까지의 울릉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공도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태종 16년(1417) 9월 경인조(庚寅條)에 의하면 방지용(方之用)이라는 자가 15가구를 이끌고 섬에 들어와 살면서 왜인을 가장해 본토에 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있어, 태종은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삼고 이만(李萬)을 동행시켜 병선 2척과 화약 및 식량을 싣고 두목되는 자를 회유하여 데려오게 하였다.[6] 태종 17년 2월에는 다시 김인우를 안무사로 임명하고 울릉도 거민을 본

토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렇듯 공도정책에 의해 쇄환되어온 거민의 수는 상당한 수에 이른 듯하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러한 공도정책은 지속하되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두 번씩 섬을 수토(搜討)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왜인들의 불법적인 왕래를 막고 유민을 쇄환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수토정책은 숙종 20년(1694)에 영의정 남구만이 삼릉첨사를 울릉도에 파견, 형세를 조사하여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진을 설치함으로써 일본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건의함으로써 시작된다.

남구만의 건의[7]로 장한상이 삼릉첨사에 발탁되고, 장한상은 그 해(1694) 9월 19일 삼척을 출발하여 10월 3일까지 13일 동안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살피고 돌아왔다. 장한상은 답사에서 돌아와, 왜인이 왕래한 흔적은 있으나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 해로가 순탄하지 않아 일본이 울릉도를 강점한다 하더라도 막기가 어렵다는 것, 보를 설치하려 하여도 땅은 좁고 큰 나무들이 많아 주민을 이주시켜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장한상의 보고에 의해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영의정 남구만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즉 민호를 이주시킬 수 없는 만큼 1년 혹은 2년에 한번 수토(검찰, 수색)하자는 것이었다. 남구만의 건의는 받아들여져 일본인의 불법 왕래를 막기 위한 울릉도 수토방침이 확정된 것이 1697년(숙종 23) 이었다.

이러한 수토정책에 의해서 수토관이 정기적으로 계속 울릉도를 왕래함에 따라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울릉도의 지리가 상세히 밝혀지기 시작하였고, 서식하는 동식물들도 조사 되었다. 이처럼 17세기 말에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기 전부터 연변민(沿邊民)들은 울릉도로 출어하고 있었는 데 안용복(安龍福)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수토가 실시되어 울릉도의 지리가 알려짐에 따라 연변인들의 왕래가 더욱 잦아지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인삼을 캐거나 향죽, 어패류를 채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의 왕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2) 이규원의 검찰일기와 개척령

수토관들이 울릉도를 오고 감에 따라 일본인의 울릉도 침어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일본인의 침어는 다시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정부는 적극적인 울릉도 경영에 나서게 된다. 일본인의 침어가 확인된 것은 1881년 고종 18년 이었다. 고종 18년 5월 22일자 『승정원일기』에

6) 『태종실록』 권23 태종 16년 9월 庚寅.
7)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8월 戊申.

보면 그해 초 울릉도를 수토하던 관원에 의하여 무단 벌목을 자행하던 일본인 7명이 적발되었다. 이 일본인들은 벌채한 목재를 원산과 부산으로 반출하려던 중이었다 한다. 이 사실은 곧 강원도 관찰사 임한수(林翰洙)를 거쳐 조정에 보고되었다.[8]

보고를 접한 총리기무아문에서는 그해 5월 22일 두 가지 대책을 건의 하고 있다. 첫째는 불법적인 벌목을 금지시켜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 현지로 파견해서 지형과 울릉도의 방어와 수호에 대한 문제를 조사시켜 그 보고에 따라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져 다음 날인 5월 23일에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이규원이 울릉도로 떠난 것은 이듬해인 1882년 4월이었다. 검찰사로 임명된 지 거의 1년이 지나서였다. 이규원은 떠나기 전 고종으로부터 몇 가지 지시를 받고 떠났다.

첫째는 섬에는 일본인들이 왕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찰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무단 벌목하면서 울릉도에 드나들기 때문에 내려진 지시였다. 둘째는 울릉도 옆의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 혹은 송도(松島)와 죽도(竹島)라 부르는 섬들의 지리를 자세히 살피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경식처(耕食處)'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도와 별단(別單)을 작성하여 올리라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검찰사를 파견한 것은 실제로 이미 울릉도 개척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9]

이규원은 1882년 4월 7일 고종에게 인사하고 4월 10일에 등정하여, 4월 29일 울릉도로 향하였다. 이규원 일행은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 동안 울릉도의 구석구석을 답사하였다. 이규원은 우선 울릉도에 머무는 11일 동안 섬에 머무는 본국인이 140명이었음을 확인하였다.[10] 이들은 거의가 하층민 계층으로 포구 가까이에 진을 치고 살고 있었다. 송병기의 『조선왕조·고종조의 울릉도 수토와 개척』에 보면 이들이 막을 친 포구는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 24명)[11], 대황토구미(大黃土邱尾, 23명)[12], 왜선창(倭船艙, 41명)[13], 도방청(道方廳, 14명)[14], 장작지(長斫之, 13명)[15], 통구미(桶邱尾, 23명) 등 이었다. 출신지별로는

---

8)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5월 22일.
9)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4월 7일.
10)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啓木草』.
11) 황토구미는 누런 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의 서면 학포를 말한다.
12) 지금의 서면 태하동을 말한다.
13) 지금의 천부를 말한다. 천부가 왜선창으로 불리어진 것은 옛날부터 이곳에 왜인들이 와서 배를 많이 건조했기 때문이라 한다.
14) 지금의 도동임.
15) 지금의 사동을 말한다.

전라도가 가장 많아 함양(전남 고흥) 94명(선주 5, 격졸<格卒> 89), 낙안(樂安)(전남 순천군 낙안면) 21명(선주 1, 격졸 20) 등 115명이었으며, 다음이 강원도(평해) 14명(선주 1, 격졸 13), 경상도 10명(경주 7, 영일<迎日> 2, 함양 1) 이었고, 이밖에 경기도(파주)가 1명 이었다.[16]

이처럼 출신자 중에서 전라도 출신이 유독하게 많은 것은 심층면접에서도 밝혀진 결과이지만 당시에 이른바 '나선(羅船)'이라는 전라도의 배가 지금의 천부를 중심으로 많이 왕래한 결과이었다. 이 '나선'은 봄에 전라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여름 동안 배를 건조하고 미역을 채취하고 고기를 잡아 다시 돌아가는 배를 말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들이 전라도에서 왔다하여 이들의 배를 가리켜 '나선'이라 불렀다 한다. 이 당시 전라도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규원이 검찰할 당시가 5월이면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천부에 정박해서 활동하고 있을 시기로 유추된다.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 115명으로 가장 많고 또 그 중 많은 사람이 천부에서(41명)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즉 이들은 울릉도에 정착한 주민이라기보다는 육지를 오고 간 유동거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일기에는 이들이 어떤 일에 종사했는지도 기록되어 있는 데, 전라도에서 온 115명은 주로 조선이나 약초채집,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 온 14명은 조선차(造船次)인 듯하고, 경상도에서 온 10명 중 8명(경주 8명, 함양 1<전석규>)과 경기도에서 온 1명은 약초를 채취하고 있었으며, 경상도의 나머지 2명(영일)은 연죽(烟竹)을 베는 일을 하고 있었다.[17] 일본인들의 무단벌목도 사실임이 확인되었는 데, 이규원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일본인들과 서면으로 문답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들은 이로부터 2년 전인 1880년 고종 17년부터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나무를 베어왔고, 당시에 울릉도 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의 수는 78명이었다.

이로써 이규원은 4월 30일 울릉도로 출발하여, 5월 2일 소황토구미에서 육로로 대황토구미(태하), 흑작지(黑斫支<玄浦>) 등을 거치고 5월 8일에 소황토구미로 돌아왔다. 다시 5월 9일에 그는 배편으로 소황토구미를 출발하여 대황토구미, 향목구미(香木邱尾)(香木洞) 등을 거쳐 10일 저녁 소황토구미로 돌아오게 된다. 도보로 7일, 배편으로 2일 등을 합쳐서 11일간에 걸친 답사였다.

---

16) 위의 이규원의 『검찰일기』에는 당시의 인구가 116명으로 되어 있고 『울릉도검찰일기 · 啓木草』에는 140명으로 되어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검찰일기』에 의거한 1882년 울릉도 인구 116명 중, 벌목 조선공인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채곽인(採藿人) 14명, 채약인(採藥人) 9명, 예죽인(刈竹人) 2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 도벌하러온 왜인 78명이 있었다 한다.

17)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 啓木草』.

이규원은 5월 11일에 울릉도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12일에 평해군 구산포(邱山浦)로 돌아왔고 5월 27일에 귀경하였다. 귀경 후 6월 5일에 그는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건의하였다.

첫째, 진을 두든 읍을 두든 그 적지는 나리동이며, 개척할 경우,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백성들이 즐겨 좇을 것이나 먼저 입주를 허락하여 그 모이는 것을 보아가며 조치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인들이 심지어 송도(松島)라는 표목까지 세우고 있는 만큼, 일본공사 화방의질(花房義質)에게는 물론, 일본 외무성에 항의하여야 한다.

국왕은 이런 이규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울릉도 개척을 결심하고 총리대신과 시임대신(時任大臣)에게 울릉도 개척을 서두를 것과 일본정부에 항의할 것을 지시하였다(송병기, 1999: 416).

검찰사 이규원의 검찰일기에 따르면 당시에 울릉도의 주민수가 한국인은 116명, 일본인은 78명으로, 총 194명이 있었다하며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퇴거를 명하였다 한다.

그 이듬해 고종 20년(1883)에는 조정에서 개척령을 내린 후 비로소 정식으로 육지의 주민을 울릉도로 이주시켜 정착민 가구가 16가구 54명이었으며, 도벌하러 건너온 일본인 200여명을 합하면 당시 울릉도의 인구는 260명 정도였다. 그러나 1885년에는 일본인 도벌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광무 4년(1900) 6월에 쓰여진 내부시찰관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의 보고서 『울릉기』에 의하면, 거주민은 400여 가구에 1,700여 인이었고, 일본인 거주자는 57가구에 144인이라고 되어있다. 울릉도의 가구수에 관한 공식기록이 최초로 집계된 것은 광무 11년(1907) 한국호구표에 경상남도편의 끝에 울릉군이라 하여, 총인구가 한국인 781가구 4,119명(남 2,114, 여 2,005)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인의 기록에는 한국인이 6,227명으로 2천여 명의 차이가 나며, 일본인들이 기록한 연도별 호구 표에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기재되어 있는 1911년~1915년 사이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연도별 호구수의 기복이 심하여 정확을 기하기 어렵다.[18]

2. 이주동기

개척령을 계기로 하여 울릉도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된 것은 1882년(고종 19

18) 일본인이 기록해 놓은 자료에는 1907년 당시 울릉도에 한국인이 790호 6,227명, 일본인이 175호에 616명으로 총 호수는 965호에 6,843명이었다(울릉군지, 1989).

년) 8월 이후이며, 이주를 하게 된 동기는 주로 사회·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 그리고 범죄나 유배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요약된다.

1) 사회·정치적 동기

우선 이주동기 중 가장 주된 동기 중의 하나로 혼란한 사회·정치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즉 1800년대 말에 임오군란(1882)과 동학난(1894)이라는 전란이 연이어 발생되어 육지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피해 울릉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다양한 피난처 중 이렇게 울릉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된 원인은 바로 비결이라고 불리는 『정감록(鄭鑑錄)』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개척령 이후 울릉도로 이주해 온 이른바 개척 1세대의 후손들에게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처럼 사회·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주했던 사람들 중 다수는 다시 나중에 북간도로 이주해 갔다.

2) 경제적 동기

육지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럽고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육지 사람들, 특히 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주민들은 울릉도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울릉도로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로 이주했던 당시의 이주민들은 대개가 앞서서 이주해 정착해 있던 울릉도민들과 사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은 대대로 육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어업기술을 거의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하듯이 과거에도 울릉도에서는 어업 이외에 생업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곳, 즉 평지는 '나리분지'를 제외하고는 드문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주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리분지에 정착하여 주로 농사를 지었다. 한정된 농토에서 이들은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생존과 싸워야 했고 이로 인해 개척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3) 범죄 및 유배동기

개척령 당시만 해도 본토의 행정력이 울릉도에는 거의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육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도피처로 울릉도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더불어 정치적 이유로 유배된 사람들 또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도정책의 시행 중에도 꾸준히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볼 때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까지 본토에서 울릉도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동기는 이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선인들 이외에도 울릉도에는 일본인들도 거주하고 있었는 데, 이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울릉도에 오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우선 일본인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울릉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동기로 이주했던 일본인들은 주로 울릉도에서 그들이 지닌 어업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울릉도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나 벌목꾼들이었다. 이들의 거주와 경제활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일본인들이 한국 땅에서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두 번째 유형의 일본인 거주자들은 주로 일본관료나 회사원(주재원) 또는 승려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도피하여 울릉도로 들어오게 된 유형이다. 이들 역시 피난처로서 울릉도를 거주지로 택한 자들이었다.

V. 조사결과 분석

1. 사례조사에 대한 개요

현재 울릉도의 주민은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도 있으나 주로 대구 주변의 경상도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울릉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대구와 포항지방의 언어와 생활 풍습이 거의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울릉도에 대한 답사 및 인터뷰는 울릉도 현지에서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 이후에 울릉도 이외의 지역인 안강 등지에서 추적면접이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자는 모두 7명으로, 면접자의 거주지는 도동, 저동, 천부, 나리분지, 태하동 등 전체 울릉도에 분산되어 있었다. 면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울릉도 주민의 이주과정은 개척령 직후 이른바 제1차 이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 이상은 면접자의 구술에 의해서는 더 이상 추적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보통 현재 생존해 있는 면접자들은 선대의 3~4 대 후손으로, 그들에게서는 주로 가족사와 전해오는 당시의 상황들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상 개척령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882년이었지만, 울릉도로의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그 후 동학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부터이다. 면접자들의 선조는 대부분 동학혁명을 난(亂)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 난을 피해 그들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울릉도를 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당시의 이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비록인 『정감록』 이었다 한다.[19] 울릉도가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척박함과 원시적인, 즉 육지에 비하면 문화적 혜택이 없는 이곳을 선대의 이주민들이 찾은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생존에 대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초기 이주시기의 어려움은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어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후 한동안 울릉도는 196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인구수가 1974년에 이르러 주민 수 29,810명에 이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된다(울릉군지, 1989). 이때 울릉도는 본토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문화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본토보다 훨씬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초기에 울릉도민이 이주하고 정착하게 된 과정과 동기 속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측면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복합요소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안정을 추구하려는 인간본연의 심리적 측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이 밝혀졌다.

2. 울릉도민의 이주동기 분석

심층면접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울릉도민이 정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의 이주동기는 이들의 생애사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들이 하지만 이른바 동학난에 연루된 것인지, 단순히 난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당시의 국내정세는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12년 뒤인 1894년에는 동학난이 일어나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때였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비록이라 일컬어지는 『정감록』에 눈을 돌렸고, 이러한 비록은 선비층에 의해 해석되고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지러운 정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안전한 곳으로 울릉도가 선택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로 많은 지식층이 이주하게 된 것 같다. 이것은 이주동기의 '정치·사회적 원인'으로 명명될 수

19) 이는 대부분의 제보자들을 통해 확인 되었다.

있을 것이다. 즉 혼란한 본토의 정치·사회적 정세를 피하기 위해 울릉도로 많은 주민이 이주하여 온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882년에 개척령이 내려지고 울릉도로의 합법적인 이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만약 본토의 난국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의 수토정책이 계속되었다면 울릉도민의 이주동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주민의 후손들이 전해주는 구전에 의하면 그들의 이주는 적어도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을 피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열망인 자발적 이주동기와 본토 정세의 불안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상황에 의한 강제적 이주동기가 합쳐져서 울릉도를 택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이주할 때 대개 먼저 울릉도로 들어간 사람들과 연줄을 맺고 계속 이주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경주 김씨로 현재 종친회를 맡고 있는 '김성황' 씨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울릉군의 통계연보(1989)를 보아도 알 수 있다. 1987년 당시에 울릉군의 10대 씨족 현황을 살펴보면 김(경주, 김해, 월성), 박(밀양), 이(월성, 경주), 윤(파평), 정(연일), 장(인동), 최(경주)가 총 1,702가구인 데, 이 중에서 경주 김씨가 389가구로 전체의 약 22.85%를 차지하고 경주지역에서 온 전체 성씨 김, 이, 최를 합하면 646가구로 전체의 약 37.95%를 차지한다(울릉군, 1989: 72). 이는 10대 씨족이 울릉군의 총 가구수 2,845가구 중 1,702가구로 약 6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이다. 성씨를 초월해서 선대의 거주지가 경주지역인 주민의 비율은 전체 성씨의 약 22.7%인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주 경로를 살펴보면 주민들은 당연히 경주지역에서 포항을 거쳐 뱃길로 울릉도로 온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 어느 사회든지 경제적 안정이야말로 가장 큰 삶의 조건일 것이다. 울릉도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대부분 역시 바로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교통상황으로는 울릉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간혹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울릉도의 상황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초기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이주하면서 농기구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울릉도에서 농사를 지으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울릉도에는 나리분지 외에는 평지가 거의 없고, 나리분지도 화산의 분화구이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지을 수가 없고 대부분 옥수수나 감자 또는 약초를 재배할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울릉도의 지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이주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지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원을 소비하고 울릉도의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생활

을 하였다. 이들 초기 개척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명이'와 '깍새'로 대변된다. 이주자들은 학명이 '산마늘'인 '명이'로 죽을 쑤어 굶주림을 이겨내며 목숨(命)을 이었고, 그 울음소리를 따서 지은 이름인 '깍새'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지탱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리분지의 나리라는 이름이 개척민들이 산야에 흔히 자라는 '섬말나리'[20]의 뿌리를 캐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하여 초기에 '나리골'이라 불리어진 데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이주민이 확실한 삶의 터전으로 울릉도를 생각하기보다 울릉도의 특성을 살린 경제적 이득을 취한 후 언제라도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여, 본토와의 잦은 왕래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은 울릉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포항과 경주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울릉도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그 당시의 심정은 민요와 가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주민의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정처사술회가(鄭處士述懷歌)』 와 『울도선경가(鬱島仙境歌)』 이다.[21]

『울도선경가』 에는 당시 청일전쟁과 동학난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피해 새로운 개척지인 울릉도로 들어와서 어렵지만 굳건히 사는 개척자의 모습과 그들의 어려운 생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물질적 궁핍을 초월하려는 의지와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연에 묻힌 모습과 울릉도를 유토피아적으로 묘사한 모습은 이들의 이주동기가 경제적 부를 얻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난을 피하는 데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울릉도에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 중에 종교가 끼친 영향도 이주동기로 들 수 있다. 물론 울릉도에는 '훔치기교'라고 하는 보천교와 사찰도 있었지만 이 종교는 이주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이주에 영향을 미친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경우 울릉군에는 세 개의 사찰, 조계종 소속 대원사(大願寺)와 보덕사(普德寺) 그리고 천태종 소속 구인사(救仁寺)가 있다. 대원사는 불국사의 말사로 1896년 도동에 세워졌으며 100여명의 신도가 있고, 보덕사는 도동에 1974년에 설립된 사찰로 50여명의 신도를, 구인사는 1967년에 울릉지회와 태하분회가 그리고 1969년에 남양분회가 세워져 각각 200명, 150명, 120명의 신도가 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620명의 불교신도가 있다(울릉군, 1989: 242).

---

20)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울릉도 및 한국 동북부 지역, 만주·연해주 지역, 일본지역에 분포한다.

21) 『울도선경가』는 박시옹(朴時顒)의 작품으로, 그는 1864년생이며, 1894년 동학난이 일어나자 울릉도로 난을 피해 들어가 북면의 천부동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었다(박원섭, 1979).

기독교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들에게 구휼제도를 통한 경제적 도움과 더불어 이주민의 실제 생활에 깊이 관여하면서 많은 신도와 교회를 세우게 된다. 울릉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1909년에 나리동에 세워진 장로회 소속 '나리교회'이다. 그 이후 1999년 현재 울릉도에는 장로교 통합측 9개, 고신측 3개, 합동측 4개, 침례교 16개, 감리교 2개, 순복음 1개 등 35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울릉도 기독교 구십년사 편찬위원회, 1999: 63). 울릉도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1882년 개척령이 내려진 직후인 데, 그 동기는 육지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생활고의 어려움이나 문중 친척의 박해를 피해 울릉도로 들어오면서 부터이다(울릉도 기독교 구십년사 편찬위원회, 1999: 82). 즉 이들은 울릉도 개척사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이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현재에는 4000여명의 기독교인이 아직 울릉도에 있는 데 이것은 주민의 거의 40%에 이르는 많은 수이다.

이처럼 이주민의 울릉도 정착과정에서는 종교가 미친 영향도 매우 컸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구성을 결속시키는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앙심을 바탕으로 집단적 동질의식으로 뭉친 초기 이주민들에게는 개척 당시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

V. 맺음말

실제적으로 첫 개척민이자 공식적인 울릉도 주민은 1883년 태하동에 내린 16가구 54명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4척의 선박에 쌀 60석, 솥 2점, 종자용 벼 10석, 콩 10석, 개간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지원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후는 정부의 공식적 이주라기보다는 대개가 사적인 동기에서 울릉도를 택하였다. 그들의 출신성분은 대개가 식자계층, 그 중에는 노비와 식솔을 모두 거느린 선비층도 있었다 하니, 초기 주민의 출신 성분은 도망자나 범법자를 제외하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의 기록으로는 당시 거주민이 대개 하층민 출신이었다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인 데, 이는 개척령 전에는 주로 몰래 섬에 잠입한 사람이나, 벌목꾼이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이주민의 대부분은 식자층인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록할 만

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또한 자손 대대로 울릉도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때가 되면 언제라도 다시 육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는 이를테면 문화적, 경제적 이방인이자 경계인으로, 자신들의 이주에 대한 것을 대부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들 초기 이주민들이 주로 육지로 부터 건너온 동기는 적어도 중점 연구시기로 잡고 있는 개척령 전후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주로 육지의 어지러운 난을 피하거나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이주자들, 이른바 개척령을 전후하여 울릉도에 들어온 제 1세대 이주자 후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주자 대부분은 육지에서의 생업이 주로 농업이었는데, 울릉도에는 나리분지 외에는 농사를 지을만한 농토가 별로 없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밭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왔던 초기 이주자들의 생활은 당연히 초근목피이며, 명이와 깍새에 의지해서 그들의 목숨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러한 생활은 울릉도 이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기 전까지 아마 계속되었을 것이다. 농업에서 어업으로의 기술적 전환은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는 울릉도 주민이 역사적으로 보아서 항상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인에 의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확고히 한 아이러니이자, 한편으로는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주시기를 보면 개척 초기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60년 이후 1975년 까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척령 당시에 이주해온 사람들과 성어기에 울릉도로 이주해와 단기적으로 몇 년을 머무는 주민과는 그 이주 동기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후에 울릉도를 찾은 사람들은 가구이주가 아니라, 개별적 체류의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본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는 1909년에 223가구 736명이던 일본인이 1911년에 332가구 1,192명, 1914년에 428가구 1,404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14년을 기점으로 일본인 거주자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다가 1945년 이후 부터는 공식적으로 한 명도 울릉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울릉군지, 1989).

대개 단시간에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한 지역이나 사회의 문화를 다른 지역이나 사회로 옮겨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울릉도를 잠정적 거주지역으로 여긴 이러한 유동 거주민들이 울릉도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런 잠정적 거주자를 '문화변경인' 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울릉도에는 개척령 이후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화변경인'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러므로 울릉도는 한 때 본토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산업화된

사회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본토보다 나은 문화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이 시기의 정점을 1975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토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 이전까지는 울릉도의 생활수준이 오히려 육지보다 나았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말이었다. 이것은 곧 어업기술을 전해 준 일본인들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몰려온 잠정 이주민들의 역할이 오늘날의 울릉도라는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역할은 오늘날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울릉도는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사회체계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고도로 산업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로인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숙 (1999),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적 인식,"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87-122.

김택규 (2000), 《동해안 어촌 민속지》, 영남대출판부.

문보근 (1961), 《동해의 수련화 - 우산국 울릉도》(필사본).

박기성 (1999), 《울릉도》, 대원사.

박성용 · 이기태 (1999), "독도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도민의 문화,"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41-284.

박영준 (1999), 《섬의 세계사》, 가람기획.

배우성 (1996), "고지도에 나타난 영토.영해의식," 《역사비평》 35: 349-365.

원 섭 (1979), 《울릉도의 민요와 가사》, 형설출판사.

송병기 (1987), "조선후기 · 고종조의 울릉도 수토와 개척," 《최영희선생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399-430.

_____ (1990), "일본의 량고도(독도) 영토편입과 울릉군수 심흥택 보고서," 《한국근대사 논총》, 윤병교수 회갑기념논총, 47-70.

_____ (1999),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양태진 (1996), "문헌적 측면에서 본 독도관계 자료분석,"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5-81.

_____ (1996), "한 · 일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 《역사비평》 33: 134-156.
울릉군 (1983), 《개척백년》, 울릉도.
울릉군 (1963), 《울릉군 향토지》, 울릉군.
울릉군 (1989), 《울릉군지》, 학원인쇄사.
울릉군 (1988), 《울릉통계연보 (28)》, 경북도청구내출판실.
_____ (1989), 《울릉통계연보 (29)》, 경북도청구내출판실.
_____ (1996), 《울릉통계연보 (36)》, 경북도청구내출판실.
_____ (1997), 《울릉통계연보 (37)》, 경북도청구내출판실.
_____ (1998), 《울릉통계연보 (38)》, 경북도청구내출판실.
_____ (1999), 《울릉통계연보 (39)》, 경북도청구내출판실.
_____ (2000), 《울릉통계연보 (40)》, 경북도청구내출판실.
울릉도 기독교 구십년사 편찬위원회 (1999), 《울릉도 기독교 90년사 (1909-1999)》, 포항 혜인칼라인쇄.
울릉문화원 (1996), 《울릉문화 (3)》, 태일사.
_____ (1998), 《울릉문화 (4)》, 학원사.
이선근 (1963),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검찰성과 - 그의 검찰일기를 중심한 약간의 고찰," 《대종문화》 제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조강희 · 조승연 (1999), "독도, 울릉도민의 사회조직과 경제생활," 《울릉도 · 독도의 종합적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85-314.
한상복 · 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 지역연구 총서(1).
한상복 (1996), 《동해의 울릉군독도 연구자료집》, 부산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한상복 · 전경수 (1992), "울릉도 · 독도," 《한국의 낙도 민속지》, 집문당, 453-512.
한상복 (199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